



가톨릭마산

사순 제4주일

2024년 3월 10일

제2608호



빛으로 오시는 주님 © 사진 / 양병주 분도

주일 진레

- 제 1 독 서 2역대 36,14-16,19-23
 화 답 송 ◎ 내가 너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으리라.
 제 2 독 서 에페 2,4-10
 복음 환호송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

- 복 음 요한 3,14-21
 영 성 체 송 예루살렘은 튼튼한 도성, 견고하게 세워졌나이다. 그리로 지파들이 올라가나이다,
 주님의 지파들이 올라가나이다. 주님, 당신 이름 찬양하러 올라가나이다.



신명균 마르티노 신부
마산가톨릭교육관장

버틸 때? 아니 바뀔 때!!

여러분들도 개인적인 꿈, 희망, 목표가 있으시죠? 다 이루셨습니까? 아직 노력 중이신가요? 아니면 포기하셨습니까? 신학생 때, 저만의 각오는 “중간만 하자”였습니다. 조금은 늦게 신학교에 갔기에 부끄러운 마음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당시 저의 꿈, 희망, 목표가 사제였기에 쫓겨나지는 말자는 마음으로 중간 정도는 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잘 버텨 중간 정도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제가 된 후에도 계속 잘 버티고 중간은 하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 사제도 사제 나름이듯 버티고, 중간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노예살이에서 탈출하여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 중에 홍해 바다가 갈라져 적대자들이 심판받고, 하늘의 음식인 만나를 먹는 등 수많은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 간 그 잠시를 못참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하느님이 아닌 우상 숭배를 합니다. 어쩌면 버티고 중간만 하려는 마음이었기에 약속의 땅을 보면서도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습니다. 꿈, 희망, 목표가 아닌 그저 과정에만 만족한 결과입니다. 하느님이 불 뱀을 보내 단죄하자, 백성들은 모세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모세가 ‘구리로 만든 뱀’을 매달아 누구든 뉘우치는 마음으로 쳐다보면 죄와 병이 낫게 되는데, 이것은 버티려고만 하는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바뀌어 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느님 사랑의 약속입니다.

제가 있는 교육관은 이제 완전한 봄입니다. 겨울에서 봄이 되면 세상의 많은 것이 바뀝니다. 겨울이 익숙해졌다고 겨울에만 머무르려 하지 마시고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입는 옷과 먹거리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 바라보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자신만 생각했던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만 살았던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바뀌어야 합니다. 가는 겨울 너무 아쉬워 마시고 우리의 차가운 마음이 더 따뜻하게, 우리의 딱딱한 마음이 더 부드럽게, 우리의 어두운 마음이 조금은 더 밝아져서 주님과 함께 새로운 봄, 새로운 삶, 새로운 부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봅시다. 아멘

“자신만 바라보던
우리가 주님을 바라
보고, 자신만 생각
했던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자기 뜻
대로만 살았던 우리
가 주님 뜻대로 살
아갈 수 있도록 새
롭게 바뀌어야 합
니다.”

광주가톨릭대학교 직수여미사



교회의 봉사직무를 받는 직수여식 미사가 2월 25일 김선태 사도 요한 주교(전주교구장)의 주례로 광주가톨릭대학교에서 봉헌되었다. 교구에서는 연구과 2학년 박시원 베네딕토(고성), 조효광 프란치스코(고현) 신학생이 시종직 수여를 받았으며, 연구과 1학년 이한솔 마르코(사천), 백성훈 토마스(하대동), 조준형 가브리엘(거창), 김도선 대철 베드로(덕산동), 하찬진 고르넬리오(명서동), 이하늘 프란치스코(장평), 신상목 미카엘(삼천포), 최민용 가브리엘(용원) 신학생이 독서직을 수여받았다. 교구 성소국에서는 “부제품까지 1, 2년을 앞둔 직수여자들이 성직자의 길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교구민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을 바란다.”고 전하였다.



십자가 아래서

김혜숙 보나 시인/ 가톨릭문인회

보잘것없는 내가 주님 수난을 묵상하며 이 뜨락으로 들어서야 하다니 두렵고 부담스러운 마음만 밀려온다. 사랑으로 굽어보시는 주님 슬하에 사는 우리는 늘 평화와 행복을 꿈꾼다. 지은 죄를 생각하고 희미한 신앙을 반성하지만 높이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고통을 어찌 알 수 있으랴.

누가 못 박았나. 나, 너, 우리 함께이다. 함께 함께라고 죄들이 아우성칠 동안 묶이시고 창에 찔려 피 흘리시고 숨 거두시며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신 마지막 말 속에 우리 모두 있다.

사순절, 묵상한 것은 주님의 고통이고 슬픔이다. 부활해 다시 오신 기쁨 속에서 그 사랑과 아픔을 묵상한다.

삼십여 년 내게 중심미사의 반주를 맡겨주시고, 어설픈 내 반주를 들으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부족한 신앙을 용서해 주시리라 여기며 선율로 영성의 장을 누리며 살아온 것이다. 막중한 사명감으로 거룩한 미사를 이끌어야 하는 성가반주는 더없는 은총과 사랑이었음을. 행복하고 벅찬 세월을 주님 십자가 아래서 마음과 손으로 만지고 누른 셈이다. 건반의 노를 저으며 거룩함에도 젖어 보고 음률의 질곡 그 깊이로 스며들면서 나의 보잘것없는 신앙은 자랐고 찬송으로 함께했다.

성가의 선율이 성당 안을 채우고 마음속으로 흘러갔다. 주님도 성모님도 듣고 계셨을 반주들, 행복한 세월이 삼십여 년이었으니! 지금은 화요일 저녁미사만으로 바친다.

성모님 서 계시는 성당, 고요한 성모님의 자애 속에 얹은 신앙도 용서받는다. 십자가를 올려다볼 때마다 간구 드리고 감사함 가득한 내 생애를 대신해 반주가 이끌어주었다.

그 더운 여름날 우리는 저 십자가 아래서 혼배미사를 올렸다. 연주복이라고 부탁해 만들었던 가냘픈 웨딩드레스를 지금도 깊이 간직하고 있다. 분홍장미 몇 송이와 아스파라거스가 전부이던 꽃다발을 들고 본당 층계를 올랐었지. 그때 이미 주님은 나를 점찍어 두셨을까. 타향살이 십여 년 세월 뒤를 생각하셨을까. 등단의 팻말을 붙여주시며 내게 베푸신 시인의 길로 인도하심도 주님이셨으리라 믿는다.

일생을 하느님께 바치며 순명의 길을 걷는 사제들의 미사 집전에서 반주해 드린 일은 가장 복되고 잘한 일로 여긴다.

이제 어느 눈물 어느 기쁨 웃음도 당신 안에서 갖겠다고 기도드린다. 밤의 별, 저녁노을, 다투어 피는 꽃들 그득한 자연 속에서 평화롭게 주님을 사랑하며 느끼며 사는 행복도. 언제나 당신을 나의 심중 속에 심고 사는 날까지 감사드리며 때때로 장궤하며 기도드릴 것이다. 보잘것없는 묵상으로 영혼의 뜨락을 서성이는 저를 용서하소서, 주님.

내 죄는 세워두고/ 몸만 꿇어앉는다// 님이시여,/ 굽어보실 때/ 내 손잡아 이끌어주소서// 고요히/ 묵상하며 살라 하시네. -줄시 <장궤>



명예 마산시민에 이르기까지 율리오 베르몽 신부

황광지 가타리나

율리오 베르몽(Julius Bernond/ 한국명: 목세영 1881~19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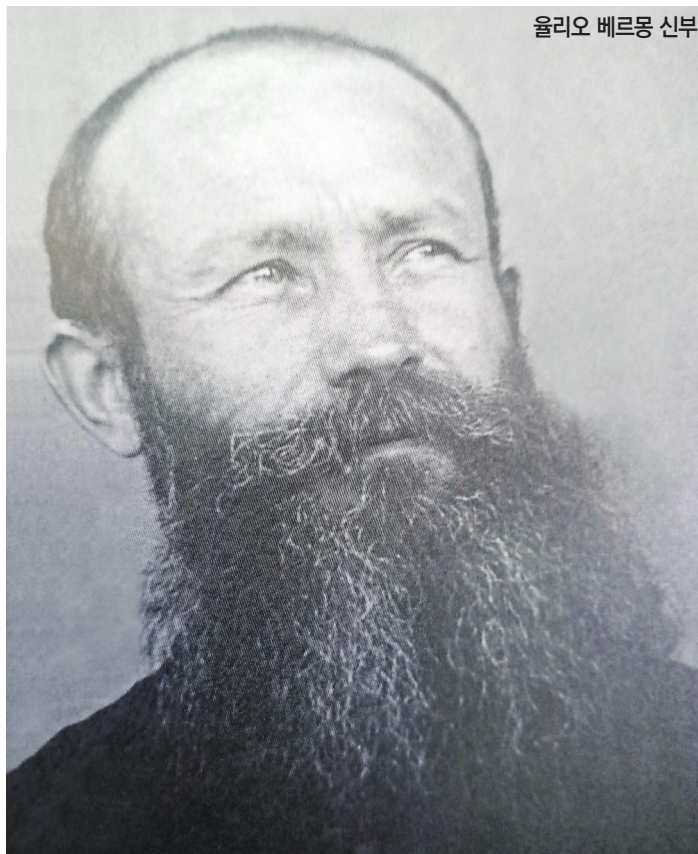
율리오 베르몽은 1881년 2월 프랑스에서 태어났다. 1905년 1월 29일 파리외방전교회 사제로 서품되어, 그해 10월에 한양에 도착했다. 조선어 공부를 한 후 전북 완주 되재본당에서 사목하였다. 그는 1914년 8월 1차 세계대전에 소집명령을 받았는데, 건강이 별로 좋지 않아 홍콩까지 갔다가 제대 조치를 받고 다시 조선으로 되돌아오게 되었다.

베르몽 신부는 1914년 9월 7일에 마산포본당으로 오게 되었다. 그동안 이 지역을 사목했던 모리스 카넬 신부가 5월에 목포로 떠나고 몇 달 동안 마산포에 사제가 없었다. 오게 되어 있던 신부와 몇 명의 선교사들과 주교까지 징집된 어수선한 상황에서 베르몽 신부가 부임했다. 와서 보니 초가지붕에 짙을 섞은 벽토로 지은 소성당과 일본식 작은 집 한 채, 도시와 항구가 내려다보이는 넓은 땅을 가진 소학교가 있었다. 30여 개의 공소를 가진 광범위한 지역이었다.

성요셉성당과 사제관 신축

베르몽 신부는 공소를 다니며 건물을 신축하고 교우들을 격려하여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였다. 하지만 1915년 일제는 조선의 종교에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고 포교활동도 허가 외에는 금지시켰다. 교우들이 박해를 피해 숨어 들어간 산에서 화전과 연초 재배, 옹기 생산을 했지만 일제는 조선임야 조사령과 조선연초 전매령을 통해 교우들의 생활을 압박했다. 교우들은 산의 터전을 버리고 도시와 평야지대로 이주했고, 일부는 간도와 일본으로까지 가게 되었다.

일제가 종교의 박해를 가했지만 마산포는 교우의 수가 증가하였다. 1926년 5월에는 마산포본당에서 밀양본당(당시 명례본당)을 분가하게 되었다. 마산포성당은 교우가 늘어가면서 성당이 협소해졌다.



율리오 베르몽 신부

베르몽 신부는 1928년 석조로 성당을 신축하여 8월에 임시축성식을 거행하게 되었다. 1932년에는 교구로부터 일부 보조를 받아 사제관을 짓게 되었는데, 전교활동으로 지친 사제들의 휴양소 역할을 할 수 있게 크게 지었다. 축성식은 6월에 드망즈 주교를 모시고 했다. 이때 성요셉성당 정식 축성식도 함께 거행되었는데, 에밀 타케 신부와 제르만 무세 신부를 비롯하여 여러 신부들도 참석했다. 타케 신부와 무세 신부가 부지를 사들이며 일구어 놓은 노력에 베르몽 신부의 건축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



초기 성요셉성당과 사제관

일제압박을 무릅쓴 역동적인 사목

1932년 6월 함안본당이 서기까지 땅을 매입하고 본당으로서의 기틀을 마련하게 한 베르몽 신부였다. 첫 주임으로 같은 파리외방전교회 소속 루이스 루카 신부가 부임하여 원활한 사목을 할 수 있게 지원했다. 1932년 10월에 베르몽 신부는 성지학교 건물을 개축하고,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수녀를 초청하여 수녀원을 건립하고 교육과 전교를 맡겼다. 1935년에 중등교육기관 부설로 성지학습회를 만들었다. 베르몽 신부는 아동들의 신심을 배양하기 위해 아동성체전교회를 조직하였다. 아동들이 매일 성당에 모여 15분 동안 죄인들의 회두를 위해 예수성심께 기도하였으며, 매 주일 2전씩 모아 전교회에 보내는 활동을 했다. 이런 활동을 다른 교우들에게도 권유했다.

이렇게 28년 동안 사목한 베르몽 신부는 1942년 말 600여 명의 교우를 남기고, 대구 낙산본당(현 가실본당)으로 떠났다. 1942년 5월 일제는 조선인들에게 징병제를 실시하고 추가로 1943년 10월에는 학도병제를 실시하여 36만 명을 전쟁 속으로 몰아넣었다. 이때 교회에 대한 탄압은 더욱 심해서 사제와 신학생까지 학병이나 징병으로 끌고 갔다. 당시 동경 상지대학에서 유학 중이던 김수환 스테파노 신학생도 학도병으로 징집되어 1944년 1월 학업을 중단하게 되었다. 일제는 전쟁 막바지 1945년 4월 모든 선교사를 대구교구청 근처의 성요셉성당(현 남산성당)에 감금시켰는데, 베르몽 신부는 낙산성당에 연금되었다. 해방된 8월 15일이 되어서야 가택연금이 풀려 선교사들은 본국으로 떠나게 되었고, 베르몽 신부는 그곳을 떠나 다시 마산으로 오게 되었다.

마산과의 소중한 긴 인연

베르몽 신부가 떠난 후 이종필 마티아 신부가 2년여 사목하던 마산으로 1945년 8월 30일 교우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다시 오게 되었다. 대구대목구는 교회가 운영하는 중등교육기관이 없는 것을 숙고하여 1946년 7월 가톨릭 중학교 설립을 논의했다. 재단을 설립하고 기금을 모아 대구 대건중학교, 김천 성의중학교, 왜관 순심중학교, 그것이 기반이 되어 1947년 5월 성지여자중학교 설립에 이르렀다.

마산본당 관할구역 조정을 계획하여 마산포는 신마산으로 하고 구마산 본당 분리를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진해공소를 본당으로 승격하여 분리하는 등 베르몽 신부는 교세 확장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였다.

율리오 베르몽, 우리이름 목세영 신부는 1948년 9월 마산을 떠나 충남 강경본당으로 옮겨 가게 되었다. 6·25전쟁 중에는 말라리아로 고통을 받으면서도 교우들은 모두 피난을 떠나도록 하고 자신은 하느님의 뜻에 맡기며 자리를 지켰던 아름다운 일화도 전한다. 그는 이곳에서 15년간 사목하고 은퇴 후에도 강경성당 사제관에서 지냈다. 1967년 9월 12일 86세로 선종하여 대전교구 성직자묘지 하늘묘원에 안장되었다.

베르몽 신부는 오랜 시간 마산지역에서 전교한 공로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인 1966년 마산시장으로부터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았다. 두 차례에 걸쳐 33년이란 긴 세월을 마산과 인연을 맺어 전심으로 마산을 사랑하며 사목한 잊지 못할 사제이다.



율리오 베르몽 신부 묘

▶참고: <천주교마산교구40년사> <완월동성당120년사>
천주교대구대교구 자료, 천주교대전교구 자료, 성지여자중학교 자료

기억할 선종 사제



김용백(요한) 신부
2016년 3월 13일

교구장 서리 동정

수녀연합회 강의
일시: 3월 12일(화) 10:30
장소: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견진성사
일시: 3월 17일(주일) 11:00
장소: 삼계성당
집전: 교구장 서리 신은근(바오로) 신부

본당 재정업무 지도방문
일시: 3월 12일(화)
본당: 창녕/ 영산

일시: 3월 13일(수)
본당: 칠원/ 의령

일시: 3월 14일(목)
본당 및 단체: 함안/ 가톨릭농민회

교구/본당

성경 교육봉사자 월례모임
일시: 3월 12일(화) 14:00/ 19:30
장소: 교구청

비정규성체분배자 교육
일시: 3월 13일(수) 14:00
장소: 교구청

3월 가나혼인강좌
일시: 3월 17일(주일) 13:00
장소: 교구청

위원회/기관/단체

2024년 전례와 꽃예술학교 1학기 개강미사
일정: 3월 11일(월) 10:00
장소: 교구청
문의: 성소국 055·249·7061, 010·9088·4864

222차 ME주말
일시: 3월 15일(금)~17일(주일) 2박 3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문의: 황인성(골디아노) 010·4570·3392
김은수(소피아) 010·9234·8171

장애·비장애 통합 합창단 '파첸 합창단' 단원 모집
일시: 매주 목요일 10:00~12:00
장소: 진해장애인복지관 2층 대강의실
모집: 수시(노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분야: 합창, 피아노 반주(반주자는 자원봉사 실적 등록 가능)
신청 및 문의: 055·540·0440(진해장애인복지관)

도박문제로 힘드십니까?
도박을 끊고 싶은 본인과 도박문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가족을 위한 익명의 모임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단도박모임: www.dandobak.or.kr
일시: 매(주일) 17:00/ 장소: 월남동성당
문의: 010·9992·3443(Mr.정)

마산가정상담센터 이용 안내(무료상담)
상담시간: 월~금 09:00~18:00
내용: 가정폭력(부부갈등, 외도), 데이트폭력, 스토킹, 가족문제, 다문화가족문제 등
방법: 전화, 내방, 방문, 서신, 온라인 상담
위치: 마산역 앞 가톨릭여성회관(2층)
문의: 055·296·9126/ 297·3288
카페: cafe.daum.net/magapok
▶상담내용과 내담자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통영시가정폭력상담소 이용 안내(무료상담)
상담시간: 월~금 09:00~18:00
내용: 가정폭력(부부갈등, 중독), 데이트폭력, 스토킹, 가족문제, 다문화가족문제 등
방법: 전화, 내방, 방문, 서신, 온라인 상담
위치: 통영시 보건소 옆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1층)
카페: cafe.daum.net/6407795/ 인스타: tygapok
문의: 055·640·7795/ ★일시보호센터 운영
▶상담내용과 내담자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기 타

한티 가는 길(도보순례)
일시: 1차-3월 21일~23일, 2차-4월 10일~12일
3차-5월 6일~8일, 4차-6월 6일~8일
5차-9월 25일~27일, 6차-10월 10일~12일
7차-11월 25일~27일
장소: 왜관수도원 피정의집/ 연화리 피정의집(3차, 6차)
참가비: 25만 원, [대구은행 504-10-102896-6]
(재)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
문의: 010·6791·0071

수도전통에 따른 렉시오디비나(성독)
일시: 3월 23일(토) 10:00~16:30/ 준비물: 성경
장소: 부산 분도명상의집/ 참가비: 3만 원
문의: 010·3271·0766(권벨라렛다)

성령기도회	일시	장소	주제	강사	미사 주례	문의
교구	3월 11일(월) 19:00	중앙동성당	아름은 어디있느냐?	노정혜 크리스티나(수원교구)	박혁호 미카엘 신부	010·5247·9900
청년	매주 (수) 19:30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4층	성령기도회	19:30 미사 봉헌/ 20:00 기도회		010·6667·7809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살레시오회	3월 16일(토) 14:00 상시 모임(일정 및 장소 문의 바랍니다)	서울 개화동 수도원	010·3800·1579/ vacationoh@daum.net 010·6221·3520	보건 및 복지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 대상: 중1~35세 이하 미혼 남성

신세계피부비노기과 피부질환 / 비노기질환 · 수술 / 전립선암 검진 진주시 동진로 172 세원빌딩 3층 (자유시장 사거리) 원장 김인구 베네딕토 055,757,9888~9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마산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0-3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무화과잼, 귤잼, 포도잼 410g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 수녀원 직영 쇼핑몰 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010-2652-0706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10-6299-1137 
가톨릭 우리농 직매장 유기농산물 · 유기농식품 전문점 창원시 중동중앙로 47 어반브리스 상가 1층 055·266·7010	마산 성바오로서원 성바오로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에 있던 성바오로서원이 반송성당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많은 이용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소: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473번길 25 문의: 055·248·3089/ 010·9753·3089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일시: 1박 2일- 5월 11일(토)~12일(주일)

6월 8일(토)~9일(주일)

3박 4일- 4월 4일(목)~7일(주일)

4박 5일- 5월 27일(월)~31일(금)

8박 9일- 3월 14일(목)~22일(금)

4월 15일(월)~23일(화)

40 일- 4월 11일(목)~5월 20일(월)

장소: 경기도 파주시 문산 예수마음피정의 집

문의: 010·4906·5722, 031·953·6932

나자렛 예수 수녀회 피정

피정: 개인 피정 및 전례 피정

장소: 본원 피정의 집(경남 창원군 성산면 운봉길 25-12)

문의: 010·4686·4903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시: 매주(수) 14:00~20:00

장소: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2층

대상: 신자, 일반인

내용: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성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분

상담자: 강윤철(요한 보스코) 신부(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문의: 010·3551·2038

신석복 마르코 치명 기념 도보순례

올해로 158주기를 맞은 신석복 마르코 순교자의 순교를 기념하여, 순교자가 압송되었던 길을 걸으며 신앙인의 사명감을 키우고, 음악을 통한 찬양 묵상으로 사순 시기를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한 신석복 마르코 치명 기념 도보 순례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3월 23일(토) 11:00 출발

• 장소: 명례성지에서 외산 방향 도보 순례 (왕복 8Km)

• 문의: 명례성지 사무실 055·391·1205

▶ 점심으로 김밥과 음료수를 제공합니다. 식사 준비 관계로 참여 인원을 3월 20일(수)까지 성지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 간	내 용
10:50~11:00	명례성지 집결 및 접수
11:00~13:30	도보 순례(식사 및 휴식)
14:00~14:30	명례성지 야외 십자가의 길
14:30~15:30	하.사.품 찬양 음악회
16:00~	주일미사

성가정본당(구 서포선교본당) 사순 음악 피정 실시



성가정본당(주임: 임성진 요한 신부)은 2월 18일 사순 음악 피정을 실시하였다. 본당 신자 200여 명이 함께한 이날 피정은, ‘나는 살아서도 죽어서도’라는 주제의 강의를 시작으로 찬양팀의 사순 묵상 찬양을 통한 기도 방법 안내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과 그분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묵상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성가정본당은 명칭 변경에 따른 화합과 일치를 위한 피정과 교육을 계속해서 이어갈 예정이다.

옥포본당 평화의 모후 Pr. 2,000차 기념 주회



옥포본당(주임: 박혁호 미카엘 신부) 평화의 모후 Pr.(단장: 유선이 사라)은 2월 27일 2,000차 기념 주회를 가졌다. 평화의 모후 Pr.은 1985년 1월 25일에 설립되었으며, 50대 60대의 여성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화의 모후 Pr. 단원들은 2,000차 주회를 맞아 앞으로도 성모님의 군대로서 협조단원과 행동 단원이 단합하여, 더욱 열심히 레지오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성체성사와 교회법(3)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 명례성지

Q

가톨릭 신자가 가톨릭 교회가 아닌 다른 교파에서 영성체를 할 수 있나요?

A 영국이나 동유럽으로 여행을 가시거나 출장을 가시는 신자들이 가톨릭 성당을 찾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영국의 성공회나 동유럽의 정교회에 가서 예배나 전례에 참여하시는데 가톨릭과 비슷한 성찬례와 영성체가 있으니 가톨릭 신자가 그곳에서 영성체를 해도 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우선, 교회법의 기본적인 원칙은 “가톨릭 교역자들은 가톨릭 신자들에게만 적법하게 성사를 집전하고, 가톨릭 신자들 역시 가톨릭 교역자들한테서만 적법하게 성사를 받을 수 있다.”(교회법 844조 1항 참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몇 가지 조건들이 충족될 때 가톨릭 신자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비가톨릭 교역자들에게 몇 가지 성사들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를 “성사 교류”(Communion in Sacris)라고 합니다. 가톨릭 신자가 성사 교류를 받으려면 아래의 조건들이 모두 채워져야 합니다(교회법 844조 2항 참조).

- ① 가톨릭 성직자에게 가는 것이 물리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불가능할 때
- ② 필요하거나 참으로 영적 유익이 있는 경우에
- ③ 오류나 무차별 주의의 위험이 배제되는 경우에
- ④ 고해성사와 성체성사와 병자성사를 유효하게 보존하는 교회의 교역자에게
- ⑤ 고해성사와 성체성사와 병자성사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사 교류에서 중요한 것은, 성사 집행자가 해당 교파로부터 유효하게 서품된 성직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가 성사를 유효하게 집전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정교회에서는 사제직이 유효하게 보존되어왔으므로 유효한 성사를 집전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동방교회교령』, 25항). 하지만 루터교나 성공회의 사제직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레오 13세, 서한 「성공회 서품」, 텐칭거 3315~3319항 참조).

그리고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일치 운동에 관한 교령 「일치의 재건」 8항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성사 교류를 그리스도인들의 일치 회복을 위하여 분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이 성사 교류는 특히 두 가지 원칙, 곧 교회 일치의 표명과 은총 수단의 참여에 달려 있다.”

따라서 단순한 호기심으로, 혹은 장례나 혼인 때에 다른 교파의 전례에 참여해서 성사를 받을 수는 없지만 교회법에서 언급하는 위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가 장기간 이어질 때 영혼의 유익과 구원에 직결되는 성체성사와 고해성사와 병자성사는 교파를 초월해서 성사 교류가 가능합니다.



최재상 마티아 신부 作

십자가 현양

가톨릭 성가 30번은 형벌의 도구, 죽음의 길인 십자가를 노래합니다. 승리하리라, 구원의 길이라 십자가를 찬미합니다. 구리 뱀이 높이 들어 올려지듯 하느님의 어린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어 올려지심을 찬양합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요한 12,24)라는 당신의 말씀대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열매를 인간에게 무상으로 선물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어 올려지십니다.

“우리는 다른 피조물들과 더불어 살아가며, 그들을 지키고 보호할 소임을 받은 관리인입니다. 우리도 지구 생태계 안에서 함께 공존하는 가족 구성원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탐욕과 오만으로 하느님과 자연을 거슬러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속죄하는 생태적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무절제하게 개발하고, 생산하고, 소비하고, 버리는 생활 양식을 이제는 바꾸어야 합니다.”(한국 천주교 주교단 기후 위기 성명서, 〈기후 위기, 지금 당장 나서야 합니다〉, 2020년 5월 8일.) 절제와 배려의 태도를 수반하는 생태적 회심은 폭력적인 소비 문화를 “돌봄의 문화”로 바꾸는 출발점(『찬미받으소서』, 231항 참조.)이자 한 알의 밀알이 되려는 의지입니다.



생태적 죄와 생태적 회개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기후 변화의 문제, 생태 위기의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교가 어느 정도 그 원인을 제공했다고 누군가가 비판한다면 여러분은 그 말에 공감하시겠습니까?

미국의 역사학자인 린 화이트 주니어 Lynn White Jr.는 <사이언스>지에 기고한 자신의 논문, 「우리의 생태론적 위기의 역사적 근원들 (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al Crisis Science 58, 1967)」에서 유대교에 바탕을 둔 그리스도교는 다른 피조물을 '인간의 의도'에 봉사할 뿐 다른 목적이 없는 존재로 이해하는 인간 중심적인 종교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과학과 기술이 생태계에 미친 결과를 볼 때, 과학과 기술에 의해 통제를 넘어서는 힘을 인간에게 부여한 그 근원이 그리스도교의 자연신학과 자연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인간 초월성의 실현이라고 볼 때, 현대의 생태적 위기에 대해 그리스도교는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린 화이트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그런데도 그리스도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 인간 중심적이며, 인간을 자연으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분리하여 인식하도록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톨릭교회교리서」는 모든 피조물의 고유한 선에 관해 이야기하면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기 위해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인간을 위하여 창조하셨다.”(가톨릭교회 교리서 356)라고 말하는데, 이는 교리서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지 않는다면, 인간과 다른 피조물과의 조화보다 다른 피조물이 단지 인간을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가 보이기도 합니다.

2000년이 넘는 그리스도교의 역사 안에서 교회가 환경의 문제, 생태의 문제, 하느님과 인간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느님과 인간, 피조물과의 관계에 대해서 성찰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환경의 문제와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대한 현대적 해석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71년 바오로 6세 교황께서 회칙 「팔십주년 Octogesima adveniens」에서 인류를 위협하는 문제들로서 광범위한 차원에서 생태 위기를 언급하시면서부터입니다. 바오로 6세 교황께서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 창조질서 안에서 인류 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할 자연을 인간 “스스로 자연을 불법 사용함으로써 자연을 파괴할 위험에 직면하고 인간 스스로가 도리어 이런 타락의 희생물이 될 위험도 없지 않음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언급하시며, “모든 것을 경제성과 상업성, 힘과 유익성으로만 측량하려는 유혹을 물리쳐야” 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바오로 6세 교황의 환경문제에 대한 교회의 공식적인 언급으로 시작된

환경 보호에 대한 교회의 견해와 가르침은 후대 교황들에게서 더 구체화하고 확장 발전되었습니다. 단순히 이는 사회에서 말하는 환경 보호의 차원을 넘어서 그리스도교의 창조관을 바탕으로 한 인간과 자연의 올바른 관계에 대한 숙고가 반복 확장되어 교황들의 가르침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들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찬미받으소서」 회칙에서 통합되고 발전되었습니다.

교회의 가르침과 프란치스코 교황의 「찬미받으소서」 회칙은 환경파괴와 생태 위기의 문제를 주목해 오면서 2가지 점을 현대의 생태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에게 요구되는 자연 질서와의 조화를 경제적 이익에 따라 무시하는 행태이고, 다른 하나는 과학 기술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과 무차별적인 적용입니다. 즉,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그분께서 사랑으로 새겨 놓으신 창조질서 안에서 조화를 이루며 하느님의 선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데, 여기서 창조질서를 보호하며 하느님의 선을 지켜야 할 인간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과 편의를 위해서 그 질서를 파괴해 왔다는 점과 피조물들은 저마다 고유한 선과 완전성을 지니고 고유한 방법으로 하느님의 무한한 지혜와 선의 빛을 반영하는데 과학과 기술은 그 피조물을 대상화하고 도구화함으로써 지배와 착취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윤의 극대화와 무한한 발전에 맹목적인 과학 기술 지배의 패러다임이 세계를 이해하는 지배적인 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에 대한 이해는 결국 우리가 뿌리내리고 살아야 할 공동의 집인 지구라는 환경을 이용 가치와 이익으로만 판단하게 함으로써 관계성을 잊게 만들어 버리고 결국 파괴합니다.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성의 파괴는 결국 인간과 인간, 인간과 창조주의 관계성을 단절하고 파편화함으로써 자연과 인간 사회 모두를 위협하는 문제로 발전하게 됩니다. 즉, “자연 세계에 짓은 죄”(「찬미받으소서」 8항)는 인간에게 다시 위협으로 다가오게 됨은 물론 하느님의 창조질서를 파괴하였기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교회의 바르톨로메오 총대주교와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함께 말씀하시는 ‘생태적 죄’입니다.

성경적, 신학적 의미에서 죄라는 것은 하느님의 뜻을 거슬러 하느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행위입니다. ‘생태적 죄’라는 것은 하느님과의 단절의 의미를 단순히 인간과 하느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 하느님과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생태적 회심’은 단순히 자연 파괴와 착취에 대한 것만이 아닌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하느님과의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회개입니다.

작은형제회 김석찬 호노리오 신부

샌디에고 *Franciscan School of Theology* 대학원, Master of Arts

「프란치스칸 전통 안에서 생태적 회개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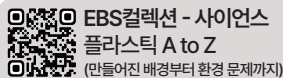
탄소 발자국^{2030*}을 줄입니다!

*글자체: 빙하체, '노타입' 개발, '글자 축'을 활용해 북극해 빙하가 녹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이번주 빙하량연도는 2030년입니다.

실천사항 4 재생하기_Recycle

'분리수거'의 불편한 진실

2024년 분리수거 방식 변화(적발 시, 최대 2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페트 생수, 음료, 식품을 담았던 용기만 페트 배출
그 외 페트 일반 플라스틱 분리배출



HDPE



LDPE



PS



PP



PVC

HDPE ~ PVC: 플라스틱 분리배출



OTHER

위의 재질이 아닌 단일 재질 및
2가지 이상의 플라스틱 재질이
복합된 것
재활용 불가, 일반쓰레기 배출

플라스틱



뚜껑에 달린 스프링 등을 분리하기 어려울 시,
일반쓰레기로 배출

분리 후 깨끗이 씻어 재활용



재질별로 분리하여 배출
분리 안될 시: 일반쓰레기,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재활용 불가

>> 지자체에 따라 처리 방법 다름

즉석밥

OTHER 표기-재활용 불가
CJ(햇반)에서 독자적으로 수거해 재활용

알쏭달쏭 재활용

비닐



라면, 과자 등 비닐 포장지 접지 않기
두껍고 무거워져 기계에 들어가지 못함
> 과태료 대상, 깨끗이 씻고 말려 비닐로 배출

용기 라벨자: 용기에서 분리하여 비닐로 배출

음식물

쓰레기 구분 기준

동물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 먹을 수 없는 것!
일반쓰레기로 배출



수박껍질
잘게 자르고
물기 제거한 후,
음식물쓰레기로 배출



함께! 해요, 올바른 재활용



순환거버넌스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이용하기
폐가전(소형 5개 이상~대형) 무상방문 수거 후,
유해물질을 안전하게 처리한 후 자원 재활용함
수익은 저소득 가정 지원 등 복지 기금으로 사용됨
전자제품뿐 아니라 폐휴대폰도 수거함.

페트병의 재발견

국수 1인분 계량기

: 주둥이 부분 갈때기보다 더 짧게 자르기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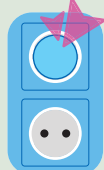


페트병 갈때기

: 주둥이 부분 자르기 - 잡곡류 사용 용이

전기 콘센트 페트병 뚜껑 막이

: 먼지를 막아 주며, 아이들의 사고를 예방



페트병 수경 화분

: 반을 잘라, 뚜껑을 닫아 뒤집어 물을 채워 사용
물 갈이 시, 뚜껑을 열어 쉽게 물 배출 가능